

[아트인 선정 불만한 전시]두산갤러리, 닥터박갤러리,..

김기라-곽수연-안창홍의 다양한 작품들 선보여

CNBNEWS 왕진오 기자 / 2012- 03- 03 21:29:48



▲ 김기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180x160x160cm, 브론즈에 채색, 2011. ©2005 CNBNEWS

▷ 두산갤러리, 김기라의 '공동선_모든 산에 오르라!'

사진, 회화, 영상과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사회와 개인의 모습이 반영된 작품을 선보여 온 김기라(38)가 작업 전반에 흐르는 희극적 요소와 서사적 구조를 통합한 '스펙터'연작을 선보인다.

작가의 '스펙터(망령)' 연작은 신화와 종교, 사회, 경제구조로 인해 파생된 이미지나 성상들이 인간의 존재와 삶을 확장시키고 '공동선'을 향하게 하기 보다는 망령이 되어 보이지 않게 인간을 제약하고 규제하며 욕망을 부추긴다는 김기라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난 8년간 세계 10여 개국을 다니며 모은 500권 이상의 문화, 역사, 인류사 등의 서적에서 고집어낸 신화와 성상의 이미지들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전시는 1일부터 29일까지 종로 두산아트센터 1층 두산갤러리에서.



▲ 곽수연, '팬더삼촌이야기'. 115X88cm, 장지에 채색, 2011. ©2005 CNBNEWS

▷ 닥터박갤러리, 곽수연의 '희귀동물보고서'전

오랫동안 표현해 온 개라는 존재를 인간에 비추어 역설적인 표현과 위트, 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곽수연(35) 작가가 '희귀동물보고서'라는 타이틀을 걸고 7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사라져가는 동물들과 조우를 통해 동물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적인 문제를 위트와 유머를 정갈한 화폭에 담았다.

사뭇 심각한 이슈들이지만 우리의 해학적 전통 민화와 서구의 팝 아트를 차용·혼합해 곽수연만의 독특한 시각적 역설 법으로 그려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유쾌한 공감대를 유도한다.

작가에게 개라는 존재는 자아의 관점이 이입된 분신이자 인간답지 못한 인간, 즉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현재 작가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환경적인 문제를 곽수연식 방식으로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전시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닥터박갤러리에서.



▲ 안창홍, '인도'. 잉크젯 프린트, 2012. ©2005 CNBNEWS

▷ 갤러리룩스, 안창홍의 '생의 날 것을 담아낸 사진'전

도발적인 회화 작업으로 기억되는 작가 안창홍(59)이 사진 전시를 한다는 것에 의아한 반응이 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안창홍은 카메라를 "견고하면서도, 까맣게 반들거리는 탐미적인 눈알"이라고 표현하며 그간의 작품들도 사진과 연관된 혹은 사진을 이용한 것이 다수였다.

여행은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주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한다. 많은 작가들이 새로운 작업, 혹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 여행을 택한다.

이번에 갤러리 룩스에서 '쿠리에서 고비까지'라는 제목으로 전시하는 작가 안창홍의 사진도 새로운 시각적 충족감을 얻기 위한 여행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전시는 7일부터 27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룩스에서 진행된다. <왕진오 기자>



인쇄하기



댓글기